

정읍시, 민원·지적 행정 '우수기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국가공간 정보 유공 표창 등 잇따라 성과

정읍시가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국가공간 정보 유공 표창,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 선정 등 정부의 민원과 지적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는 최근 전자지도가 주관하는 '2024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지적행정 선진화,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등에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주어지는 인증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증 기간은 2027년까지다.

이와 함께 9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월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며 국비 14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 도시 지역 약 95km²에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 도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민원지적과는 정읍시 주관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팀장 벤치마킹 우수제안 선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내부 혁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올해 민원지적과의 성과는 정읍시의 민원·지적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높은 평가



남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군·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읍·면·동장 1일 1가구 가정 방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복지 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민관 연합 모니터링단 '행복살림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복지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남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청년 단체에 '청년 1번가' 입주 기회

특산품 전시·판매... 19일까지 최대 3년 계약... 소득 창출 지원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 내 청년창업 공간 '청년1번가(청년상점)'에 입주할 청년단체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1번가는 청년의 창업역량을 높이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개소했다. 고창군이 지원하는 최초의 청년상점이다.

군은 기존 입주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사용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청년1번가를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18세~45세인 청년이고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나 법인이다.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2단계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심덕섭(가운데) 고창군수가 선운산도립공원 내 청년창업 공간 '청년1번가(청년상점)'를 찾아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고창군청 생활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1번가가 청년의 소득 증대와 생산품 판로개척은 물론 선운사 내 주변상

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지속 가능 '의료-돌봄' 체계 발굴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안정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남원시는 1대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전담 인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 개발,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시스템 활용 및 전문연구원 컨설팅 등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 행정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평생을 지키며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YMCA,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정읍시, 3년간 민간위탁 계약

정읍시는 청소년수련관의 수탁 기관으로 정읍 기독교청년회(이사장 이장형·이하 정읍YMCA)를 최종 선정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읍YMCA가 수탁자로 선정됐다.

정읍YMCA는 지난 2000년 수련관 개관 이후

24년간 운영을 맡아오며 청소년 복지와 활동 지원에 기여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정읍YMCA는 기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전경.

고창군, 지역 예술인과 '송년음악회'

19일 문화의전당서 개최... 18일엔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고창군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문화의전당에서 지역출신 예술인과 함께하는 '2024 고창 송년음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음악회 출연진으로는 프랑스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노동용 씨,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활동하는 명창 정수인 씨, 소프라노 김지혜 씨, 소리꾼 장사의 씨 등이다.

이에 앞서 전날인 18일 오후 4시 '고창 청소년 음악페스티벌'도 예정됐다. 고창문화원 소속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호

향공고의 강호오케스트라, 에어포일(밴드), 루시드(댄스), 고창고 엔젤로스(밴드), 고창중학교 제스트(댄스), 흥덕중 엘릭서(밴드), 고창초등학교 늘푸른중창단이 참여한다.

각 공연 입장료는 무료지만 관람을 위해서는 티켓이 있어야 한다.

티켓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일 현장예매도 가능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